

# 飛揚島 說話의 樣相과 國土浮動觀

玄 丞 桓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섬이동 설화의 본포 양상
3. 섬이동 설화의 관념
4. 섬이동 설화의 전파
5. 섬이동 설화의 변이 양상
6. 결론

## 1. 문제의 제기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곳에서는 산 또는 섬이 왜 생겼으며 그에 대한 유래담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귀에 익히면서 자란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고 다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라 하여 백안시해 버리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산 또는 섬이 생기게 된 유래는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줌으로써 오랫동안 그들의 정신을 살찌우는 역할을 해왔다. 더구나 산은 섬과 달리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오랜 옛날일수록 산은 생산공급체로서 식량을 제공함은 물론 연료의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해 주었다. 또한 휴식처로서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신라의 화랑들이 전국 유명산을

찾아다니며 道를 닦았다는 것은 산이 인간에게 얼마나 친근한 대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산은 공포와 외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산신제를 지낸다거나 함으로써 산은 天과 地를 이어주는 우주목의 기능을 함으로써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시되는 산이 움직여 와서 멈춰섰다는 설화는 한국 본토에 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동해 왔다는 것은 산 뿐만이 아니라 섬에도 해당된다. 제주도의 비양도 전설을 비롯해 거제도의 유, 무인도에 얽힌 전설이 그것이다. 이것은 또한 섬나라인 일본의 곳곳에서 산견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산이 이동해 왔다고 한다. 즉 대륙에서는 산이 이동해왔다는 설화요 섬나라에서는 섬이 이동해 왔다는 셈이다. 이외로 산이나 섬이 아닌 큰 바위가 이동해 왔다는 설화도 한국 본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럼으로써 어떤 地體가 이동해 와서 멈춰 섰다는 설화는 동양 전역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한 설화인 셈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제주도의 비양도 전설을 대상으로 산이동과 섬이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地體인 이들이 이동해 와 자리잡고 있는 본포양상을 살피고 설화향유층들의 이에 대한 관념을 추출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들 설화가 어떤 이유로 전승되게 되었는지, 또한 이 地體移動 설화는 어떤 경로를 거쳐 전파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설화들이 정착하면서 어떤 변이를 일으켰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 2. 섬이동 설화의 본포 양상

그러면 먼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에 얽힌 전설을 보자.

아주 오랜 옛날 비양도는 중국 쪽으로부터 조류에 떠내려 한림읍 앞바다에 까지 와서 떠돌아 다니고 있었다. 이때, 임신한 해녀가 바다에 들어가 해초를 캐다가, 난데 없는 큰 섬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해녀는 이상히 생각하여 이 섬에 올라가 잠시 쉬다가, 소변이 보고파지자 그 자리에서 그냥 소변을 보아 버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떠 흐르던 섬이 그 자리에 딱 멈추어 버렸다. (또는 임신한 여인이 큰 섬이 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야, 저기 섬이

飛揚島 說話의 樣相과 國土浮動觀

떠온다)고 소리치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떠내려오던 섬이 그만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그 후론 아무리 조류가 세어도 섬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 섬이 바로 지금의 비양도라 한다.<sup>1)</sup>

이와 같이 떠 다니던 地體가 어떤 이유로 하여 멈춰섰다는 설화가 한국 구비문학대계에는 <움직일 만한데 멈추기><sup>2)</sup>라는 항목으로 88개가 채집되어 있다. 이들의 내용은 대개가 산, 섬, 바위 등이 움직여 오는데 여자가 그것을 보고 저기 산이 움직여 온다고 하자 그 자리에 멈춰 버렸다는 이야기로 일관되어 있다. 이것을 섬과 산 이동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총 수	산이동	기 타		총 수	산이동	기 타	섬이동
서울	1	1		경북	17	13	4	
경기	3	3		경남	44	26	5	13
강원	6	2	4	전북	4	3	1	
충북	3	2	1	전남	4	3	1	

위 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어느 지역이나 산이동 설화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산이동설화가 주류인 것처럼 보아서는 안된다. 이런 의문이 문제 도출의 동기가 된다. 경남의 경우를 보면 총 44편 중 13편이 섬이동 설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전승지는 특이하게도 섬 지방인 거제도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다. 거제도에서 채록된 설화는 15편인데 2편은 산이동설화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 무인도에 얽힌 섬이동 설화이다. 곧 한반도 내부에서는 산이동 설화가 주된 내용이지만 섬지방에서는 섬이동설화가 주된 내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이들 설화는 1. 산이동설화 2. 섬이동설화의 2부류로 나뉘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1)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7, pp.25~26.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서울특별시, 경기도편.

한반도 주변의 경우를 보면 섬나라인 일본에서는 산이동 설화는 없고 섬이동설화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섬이동설화는 일본의 기카이도(喜界島)의 전설<sup>3)</sup>과 천지창조 설화<sup>4)</sup>, 미야코도(宮古島) 설화<sup>5)</sup> 등의 예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에 내륙지역인 중국의 경우는 섬이동설화보다는 산이동설화가 중국 고대신화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내용은 뒤에서 살펴겠지만 이로써 地體가 떠다닌다는 설화는 동양 전역에서 발견되는 설화의 유형이 된다. 이러한 설화를 함유했던 전승집단은 地體移動을 어떻게 관념하였을까?

### 3. 섬이동 설화의 관념

먼저 중국의 경우를 보자

중국은 많은 민족으로 형성된 나라이므로 그만큼 신화나 전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교사상과 신성사상의 융성으로 말미암아 그에 어그러지는 성격의 신화, 전설들은 많이 잃어버려지거나 단편화되어 조금씩 남아있을 정도다.

고대의 중국인은 세계의 중앙부에 九州 곧 중국이 있고, 그 바깥에 四海가 있고, 또 그 바깥에 四荒이 있으며, 맨 바깥에는 四極이 있어, 땅은 네모진 것인데, 그 네 귀에 큰 기둥이 등근 하늘을 받쳐,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우주관을 가졌었다. 이 사해의 어느 쪽에 발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蓬萊, 方丈, 瀛洲 삼신산이 있다고 史記封禪書에 전한다.<sup>6)</sup>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삼신산에는 많은 신선이 살고, 不死藥이 있으며, 새·짐승은 다 흰 빛이고, 궁전은 황금과 백금으로 꾸며져 있다. 멀리서

3) 大林太良, “記紀の神話と南西諸島の傳承”, 《日本神話》,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有精堂, 東京, 1970, p. 39.

4) 田溶新 譯, 《日本書記》, 一志社, 1990, p. 1.

5) 雄谷治, “東아시아の流れ島傳説について”, 《口碑文學國際研究發表概要》,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5, p. 59.

6) 森 三樹三郎, 《中國古代神話》, 清水弘文堂書房, 1969, p. 227.

이 산을 바라보면 구름과 같이 보이고, 거기까지 다다라 보면 산은 어느새 물 속에 잠겨 버리고 바람이 일어 배가 밀려나서 갈 수가 없다고 한다. 이 삼신산에 대한 기록은 列子湯問篇에 더 자세히 있으니,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발해의 동쪽의 무한히 깊은 큰 골짜기가 있으니, 이름하여 歸墟라 한다. 이 골짜기에는 八紘九夜의 냇물은 물론 은하수 물까지 흘러 내리지만, 수량은 불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 골짜기 속에 다섯 개의 산이 있으니 하나는 岱輿요, 둘은 員嶠, 셋은 方丈, 넷은 瀛洲, 다섯은 蓬萊라 한다. 각 산의 높이와 주위는 3만리, 정상의 평지는 9천리, 산과 산의 간격은 7만리씩, 산 위에는 臺觀이 있어 금옥으로 되었고, 새 짐승은 모두 백색, 구슬나무가 울창하여 열매를 먹으면 불로 불사하니, 신선만이 산다. 그런데, 이 五山은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조수와 물결에 항상 흔들려서 잠시도 정지하지 않는다. 이에 고심한 신선들이 천제에게 호소하니, 천제도 그대로 두었다가 산이 西極쪽으로 흘러가 버릴까 염려하고, 우강이라는 신에 명령하여 15마리의 큰 거북을 모여다 이 산들을 떠받치도록 했다.

우선 15마리를 3반으로 나누어, 5마리씩이 한반이 되어 3교대로 떠받치게 했는데 한번 교대기간을 6만년으로 정했다. 이래서 비로소 다섯 산은 고정되었는데, 이 때 龍伯이라는 나라에 거인이 있어 불과 몇 발 걸음으로 이 산에 이르고, 대번에 거북 6마리를 낚아 어깨에 매고 돌아가, 그 뼈를 불태워 점을 쳤다. 이 때문에 대여, 원교, 두 산은 북극으로 흘러가 가라앉아 버리니, 표류하여 죽은 신선 수도 헤아릴 수 없었다.<sup>7)</sup>

이 이야기는 신선사상으로 완전히 윤색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면서도 그 속에 고대적인 우주관이 잠재하여 있다. 이 이야기는 신선사상의 옷을 입혀 꾸며 놓은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 신화 속에는 중국 고대의 樂土관념이 잠겨 있는 동시에 섬 내지 산 곧 국토가 바다 위에 떠 있어 흐른다는 관념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떠 흐르던 섬은 회남자나 산해경에도 보인다.<sup>8)</sup> 이것들로 미루어 보아 이

7) 森 三樹三郎, 앞의 책, p. 229.

8) 雄谷治, 앞의 책, p. 60.

관념은 중국에 있어서의 원초적 관념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일본의 경우를 보자, 大分縣의 東國岐郡 姫島村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랜 옛날 뜬 섬으로 해상을 흘러다니고 있었다. 어느 곳에서인지 한 여신이 나타나서 떠 천발로 이 섬을 묶어 멈추게 했다. 그 떠를 묻은 무덤을 千本塚이라 한다. 지금도 이 무덤을 파서 떠를 파내면 또 이 섬이 떠 흘러간다고 한다.<sup>9)</sup>

壹岐島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뜬 섬이었는데 신이 그물로 8개의 기둥에 묶어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 그때 기둥이 부러져 오늘날은 바위로 남아 있다. <잘린기둥>이라 불리우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sup>10)</sup>

또 이외로 <姫島>는 <조선에서 흘러왔다>고 하는 異傳도 있다. 九州의 남단에 이어진 사쓰난제도로부터 유구열도에 걸쳐 이 섬이동설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기카이도<喜界島>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는 설화가 있다.

한 여인이 바닷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더니, 수평선 쪽에서 자그마한 섬이 흘러내려왔다. 여인은 깜짝 놀라서, 빨던 붉은 속옷을 들어 흔드니까, 섬이 그 자리에 멈추어 버렸다고 하고, 한 異傳에는 임신한 여인이 빨래하다가 속옷을 들어 흔드니, 흘러오던 섬이 물 속에 잠겨 버렸다고도 한다.<sup>11)</sup>

일본의 남서쪽 아마미제도(奄美諸島)의 전승에 따르면

시마코-다 구니코-다가섬을 건설했는데 그 초기에는 섬이 고정되지 않아, 땅이 흔들거렸다. 섬의 이쪽 귀를 밟으면 저쪽이 들러지고, 저쪽을 밟으면 이쪽이 들러지고 흔들흔들 하므로, 하는 수 없이 신에게 의논을 했다. 신은 섬의

9) 大林太良, 앞의 책, p. 39.

10) 雄谷治, 앞의 책, p. 58.

11) 大林太良, 앞의 책, p. 39.

동쪽 귀를 흰 돌로 누르라고 가르쳐 주므로, 그대로 했더니 섬은 비로소 고정되었다 한다.<sup>12)</sup>

中繩(오끼나와)半島에는

國初, 섬이 만들어 질 때부터 떠 다녔다.<sup>13)</sup>

고 하는 전승이 있다. 게다가 더 남쪽으로 내려와 미야코(宮古)島 설화를 보면

宮古本島の 平安名岐쪽에서 섬이 흘러왔으므로 신이 여자에게 그것을 붙잡도록 말했는데 <베를 한번만 더 짜고요>라고 하는 사이에 來間島 쪽까지 가서 멈췄다.<sup>14)</sup>

이 설화 역시 비양도 전설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다. 섬이 떠 다니고 여인의 기이한 언행으로 인해 멈추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奄姜大島에는 모든 부락에 섬이동설화가 전하고 있다 한다. 龍郷(섬 북쪽지역)에

옛날 大島가 흘러가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신이 立神을 만들어 묶어 두었으므로 섬은 흘러가지 않았다. 립신이라는 것은 해변의 큰 돌로 大島의 각지의 해변에 입신이 있다.<sup>15)</sup>

또 흘러온 섬을 2~3의 부락신 또는 노로가 서로 싸워 이긴 쪽 부락 가까이에 섬이 멈췄다고 하는 전설이 여러 부락에 보인다. 여기에서는 흐르는 섬을 묶어서 고정시켰다는 관념이 있다.

이들 일본의 설화에서 공통요소를 몇 개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섬이 흘러다닌다.
2. 여성의 몇 개의 언행에 따라 현재의 곳에 멈췄다.

12) 雄谷治, 앞의 책, p. 59.

13) 雄谷治, 앞의 책, p. 59.

14) 雄谷治, 앞의 책, p. 59.

15) 雄谷治, 앞의 책, pp. 58~59.

이것은 제주의 비양도 설화와 동일한 모티브이다. 다음은 거제도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보자

아낙네가 첫 아이를 낳고 아침밥을 삶여 놓고 밖에 나가보니 큰 섬이 하나 둥둥 떠 오고 있었다. 얼른 들어와서 그 여자는 부지깽이로 부엌문을 세번 두드리며 “범벅섬아 범벅섬아 딴 데 가지 말고 게 앞아라.” 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이름을 범벅섬이라 한다.<sup>16)</sup>

이 역시 비양도 전설과 같이, 섬이 떠 다니다가 여인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멈춰서고 있다. 이상의 결과 이들 설화 곧 일본의 설화, 비양도 설화, 거제도 설화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요소가 추출된다.

1. 섬 내지 국토가 바다 위에 떠 있다.
2. 그 국토가 떠 흐른다.
3. 떠 내려 오던 국토가 여인의 언행 때문에 정지한다.

이 모티브 중 1, 2를 國土浮動觀이라 한다면 이는 동양 삼국의 공통요소이지만, 3은 한국과 일본에만 공통하는 사상이다. 중국의 경우는 산이동 관념으로 떠 흐르던 국토가 여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멈춰섰다는 모티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과 제주, 거제에 나타나는 浮島의 모티브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제주와 일본은 고대에 밀접한 문화의 수수 관계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동일한 浮島모티브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또 국토 곧 섬이 부동, 표류한다는 사고는 그들의 생활양식, 다시 말하면 어선, 어로 생활에서 얻은 표상을 국토에 적용시켜 이해한 듯하다. 즉 어선의 부동, 표류 등이 그대로 국토관에 반영된 것이다.

한일 양국의 국토부동관이 밀접함은 언어면에서도 방증된다.〈섬〉을 일본어로 〈시마〉라 하니, 그 모음이 다를 뿐 같은 어원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은 〈島〉의 뜻 외에 〈立, 停止〉의 의미가 명사화한 것이다. 이것

16) 《한국구비문학대계》 8-2, 경상남도 거제군편, p. 37.



은 섬이란 본래 떠 다니는 것이 정지하여 선 것이라는 고대의 국토관에 근원하여 이루어진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 설화에는 설문대 할망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물장오리라는 <창터전 물> 곧 밑이 없는 깊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sup>17)</sup>가 전해온다. 이도 역시 물위에 섬이 떠 있기에 바닥이 없는 깊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관념이다. 이로써 이 국토부동관적 설화는 한일 문화의 수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설화임을 알 수 있겠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하는 3항 곧 섬이 떠 흐른다는 관념이 여자의 언동에 의해서 그 자리에 멈췄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섬이동설화를 향유하는 일본이나 제주, 거제의 고대문화는 농경중심이기 이전에 어로를 중심한 생활문화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위 사실은 남성중심의 어로문화가 여성중심의 농경문화와의 갈등에서 나타난 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새벽에 배가 출범할 때 선원들이 여성을 만나거나 배에 승선하는 것, 수험생, 운전자 등등이 새벽에 여자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어로문화권에서 배는 생활의 터전이요, 곧 생명 유지의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이러한 배는 물 위에 떠 다니며 생활의 근거지로 활용된다. 그러기에 이들이 관념하는 배는 주변의 모든 대상을 동일시하게 되고 이는 곧 섬으로 확대, 전이된다. 그러면서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어로문화는 남성중심의 문화로 정착된다. 이러한 해양민의 문화가 농경문화의 유입으로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여성중심의 문화로 변화되기에 이르른다. 이러한 사이에 남성문화와 여성문화는 서서히 충돌을 일으킨다. 생명을 걸고 출범하는 어로행위가 정착생활을 요구하는 농경문화에 의해 저항을 받는 것이다. 곧 여성의 언동에 의해 그 자리에 섬이 멈춰서게 되는 것은 이러한 문화의 충돌현상의 은유적 표상이라 하겠다. 어로문화권 향유층이 관념하는 배는 곧 섬으로 확대, 전이되고 어로작업을 위한 배의 출범이 여자로 인하여 중단될때 배는 멈춰 서는 것이고 그것은 파산을 의미할 수

17) 현용준, 앞의 책, p. 28.

도 있다. 이렇게 하여 여성으로 인한 배의 정지가 섬의 정지로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 전승되는 것이다. 배는 계속 움직여 떠다녀야 고기를 많이 잡고,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배가 멈춰서면 그것은 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배는 중단없이 움직여야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섬의 경우도 동등 떠서 오는데 중간에 정지해 버린 것은 일의 중단, 곧 일의 미완성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남성 중심의 어로문화가 여성중심의 농경문화와 갈등으로 인해 좌절 또는 흡수, 융합의 과정을 나타내는 상징화한 표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기에는 만약 섬 또는 산이 전승자들이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그 지역이 서울이 된다든지 명당지지가 되어 현재처럼 가난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전승자들의 소망도 들어있다. 전승자들은 이동해 온 산때문에 현재의 생활무대가 좁아지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완성을 앞 둔 상태에서 여성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게 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빨래를 하다가 속옷을 들어 흔들거나 일이 완성될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빨리 발설<sup>18)</sup> 했기 때문에 결과는 비극으로 끝이 난 것이다. 이러한 설화가 일본과 제주, 거제에서 발견됨은 어떤 의의를 가질까?

#### 4. 섬이동 설화의 전파

섬이동설화 속에 담겨진 향유층들의 관념은 국토부동관이었다. 이러한 관념의 설화는 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륙지방으로 들어와서는 산이동으로 바뀐다. 이러한 국토부동관의 설화의 주류는 산이동이라기보다는 섬이동임을 알 수 있겠다. 그것은 어로, 어선 생활을 하는 문화의 소산이기

18) 산 또는 섬이 이동해 와 현재의 자리에 멈춰섰다는 증거물을 제시하여 향유층들은 여성의 언행에 의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바라던 바대로 되어 성공하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출한다. 이것은 섬이동 관념이 전설로 굳어지면서 나타나는 비극적 속성이라 하겠다.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 설화는 어떤 경로를 거쳐 제주와 거제도 등지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을까.

이들의 전파경로를 추찰해 보면 이 섬이동설화의 발상지는 남방해양민들에게서 발원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섬이동의 모티브가 인도네시아와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에서 폴리네시아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sup>19)</sup>에서 좁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설화가 아니라는 방증을 삼을 수 있다. 이러한 해양성의 설화가 남중국 해안을 통해 북상하면서 내륙적 성격의 산이동으로 변이현상이 일어난다.

이들의 전파경로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섬이동설화가 남중국 해안을 통해 북상하면서 산이동으로 변이되어 황해를 교두보로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이 한 경로이다.
2. 해양을 통한 이동으로 해류와 태풍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주 및 한국본토로의 유입을 들 수 있다.

해류의 이동으로는 쿠로시오 해류를 들 수 있다. 쿠로시오해류는 적도 북부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른다. 이 흐름은 일본의 난세이 제도 사이를 거쳐 일본 동부로 빠져나가고 또 한 흐름은 대마 난류로 일본의 서부로 흘러간다. 그런 가운데 또 한 지류는 제주도 남서쪽으로 하여 황해로 가는 황해난류와 제주 북부를 거쳐 다시 대한 해협으로 흘러 나가는 것이 있다.<sup>20)</sup> 어로생활을 하는 남방해양민들은 이 해류의 이동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남중국과 동지나해를 거쳐 북상하면서 설화를 전파시킨다. 이상의 결과로 쿠로시오 해류가 일본의 큐우슈우 남부로 들어가면서 난세이제도에 섬이동설화를 남기고, 또 하나의 흐름은 제주도의 서쪽 곧 비양도를 거치면서 섬이동설화를 전파시켰다. 이 흐름은 거제도, 대한해협을 지나면서 그 흔적을 남기고 동해로 흘러간다. 따라서 이들 섬에 남아있는 섬이동설화는 남방계문화의 전파경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19) 雄谷治, 앞의 책, p.61.

20) 金 坵, “제주도 주변해류에 관한 연구의 현재와 미래”, 《제주도 연구》 제4집, 제주도연구회, 1987, pp.83~97.

이렇게 하여 전파된 산이동, 섬이동설화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향유층들의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섬을 택하든가, 산을 택하든가 혹은 바위로 변이를 일으키든가 혹은 여성으로 인해 섬 또는 산이 멈췄다고 하는 모티브들의 수수 관계가 일어나게 된다. 내륙으로 들어간 섬이동설화는 향유층들의 관심도와 합리적 사고로 인해 섬이 아닌 산이동설화로 바뀌고 섬에서는 원래대로 정착하게 되어 남방문화와의 자연스런 교류의 자취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러한 남방문화의 유입은 제주도의 영등할망을 모시는 내방신 숭배사상, 삼성신화, 또 본토의 허왕후, 탈해설화의 箱舟漂流話素 등에서 그 방증을 찾을 수 있다.<sup>21)</sup> 그래서 제주도의 비양도 설화는 남방문화의 유동경로, 나아가서 남방 해양민 문화의 일본에의 전파경로를 증명해 주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 5. 섬이동 설화의 변이 양상

남방 해양민들에게서 발원한 섬이동설화의 관념은 국토부동관이었다. 이것은 쿠로시오 해류를 이용하거나 태풍으로 인하여 제주도 거제도 등에 그 잔재를 남기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해류나 태풍은 제주와 한국본토, 일본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중국의 동남해안에도 꼭 같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의 동남해안을 따라 내륙으로 유입된 이 설화는 섬이동이 아닌 산이동으로 변이를 일으켰다. 이는 사람들의 왕래와 민족의 이동을 통하여 전파되게 된다. 그래서 황해를 이용하여 한반도 서부로 유입됨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내부로 들어가 산이동으로 변이현상을 일으킨 설화가 한반도 서부로 직수입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은 고

21) 현용준, “고대신화와 한국문학의 원류”,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pp. 85-91.

로 국내의 설화를 분석함으로써 섬이동설화의 변이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집된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산이 움직여 현재 자리에 멈춰서게 된 것을 산이동형, 섬이 움직여 현재 자리에 멈춰 서게 된 것을 섬 이동형, 산이나 섬이 아닌 암석이 움직여 와서 멈춰서게 된 것을 혼합형으로 명명하여 구분지으면 다음과 같다.

산이동형; 서울, 경기

섬이동형; 경남(거제도)

혼합형 ;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전남, 경남

본토의 서해안에 전승되는 地體이동설화를 보면 地體, 곧 산이 홍수 등에 의해 떠내려 오고 있다. 섬이동이 아닌 산이동인 셈이다. 이것은 합리적 사고로 인해 나타난 결과다.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에서 섬이 산으로 바뀌어 산이 떠내려왔다고 하는 관념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러한 발상은 홍수로 인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 대한 외경 곧 자연에 대한 신비관념이기도 하다. 다음의 예는 위 사실을 보여준다.

김포 공암산 끝 줄 닿은 곳 강 속에 자그마한 바위섬이 있으니 이섬을 광주바윗섬이라 부르는데, 이 산은 원래 광주에 있던 산으로 오랜 옛적, 비가 많이 와서 큰 홍수 때에 떠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sup>22)</sup>

여기에서 이동된 地體를 바윗섬이라 하고 있으나 김포 공암산 끝 줄에 위치한 것인 산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곧 산이동형의 한 예를 보여준다. 여기에 섬이동형 설화가 나타나는 내용인 여성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정지했다는 모티브가 삽입되기도 한다.

진안에 마이산이 다른 곳에 있었다. 터가 좋은 데로 이사하려고 밤에만 걸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가 새벽에 물을 길러 가다가 큰 산이 걸어오는 걸 보고 동네 사람에게 “아, 저기 산이 막 걸어오네” 하니 산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sup>23)</sup>

22)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 67~68.

23) 《한국구비문학대계》 5-2, 전라북도편, pp. 81~83.

이 설화 속의 산을 섬으로 바꾸면 영락없는 섬이동 설화로 인식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의 동남해안에 보이는 모티브에 세금을 지불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한반도 서남해안에도 이런 유형이 나타난다.<sup>24)</sup>

충청도 공주에 있던 산이 홍수에 떠내려 갔는데, 그 산이 옥구 나포에 가 있는 것을 알자 공주 고을에서는 옥구 고을에 대하여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 이때 옥구고을에서는 13세 아이가 기지를 발휘하여 세금받으러 온 사람을 돌려 보낸다.<sup>25)</sup>

다음은 산, 섬이 아닌 地體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혼합형의 경우를 보자.

울산암은 원래 울산에 있었다. 오랜 옛날 금강산까지 갈 예정이었지만 설악산까지 도착했을 때 피곤해 현재의 곳에 멈춰버렸고, 설악산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고려조 때 울산 현령이 <원래 울산 것이었으니까 바위산을 울산까지 운반하든지 세금을 매년 내라>고 요구했다. 설악산의 방주들은 세금을 냈지만 워낙 무거운 세금이었으므로 奇智로 이 제안을 물리쳐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sup>26)</sup>

위 이야기는 섬이동의 경우를 빼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산이 움직여 와 그에 대한 댓가로 세금을 물다가 한 인물의 기지로 인해 위기를 극복하는 유형
  2. 산이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그 사실을 발설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멈춰 버린 유형
  3. 울산바위형 : 바위가 움직이다 멈춤
- 1, 2의 구분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1의 경우 산이 움직이다

24) 雄谷治는 앞의 글에서 중국의 동남해안에서 발견되는 地體移動 모티브를 찾아 결과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보이는 세금문제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동남해안, 낙동강유역, 서남해안의 3유형으로 한국본토의 섬이동의 유형을 구분 지은 바 있다.

25)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p. 68.

26) 최상수, 앞의 책, pp. 69~70.

가 멈췄을 때 처음에 있던 곳에서는 세금을 받아간다. 이때 정지하는 이유에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2의 경우 산이 이동하고 있는데 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발설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멈췄다는 것으로 이때는 세금 모티브가 개입되지 않는다. 다만 저장산<sup>27)</sup>, 순천산<sup>28)</sup>에 얽힌 설화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설화 모티브의 혼류현상으로 보인다. 3은 독특한 형태로 산도 아니고 섬도 아닌 바위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이현상은 연오랑 세오녀 설화<sup>29)</sup>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으로 한국본토에는 3가지의 地體이동 양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고정된 형태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향유층의 의도에 따라 서로간에 모티브를 주고 받기도 하면서 성장 발전해간다.

## 6. 결 언

한국본토에서 전승되는 국토부동설화는 이상의 논의 결과로 보면 동남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한 설화의 유형으로 해양어로문화권에서 발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섬이동설화가 남중국으로 유입되어 내륙으로 들어간 것은 산이동설화로 변이를 일으키고 또 태풍의 이동이나 쿠로시오 해류의 이동경로를 따라 전파된 것은 일본의 남서부나 제주도 비양도를 거쳐 거제로 유입되고, 이를 통해 다시 본토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은 산, 또는 바위의 이동으로 변이현상이 일어남을 살펴보았다.

섬이동설화에 나타난 관념은 국토부동관이었다. 이는 해양어로민들의 문화의 양상을 반증하는 것이었으며 내륙으로 유입되었을 시는 주변대상이 섬이 아닌 산이기에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 산이동으로 변이되었다.

27)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편 참조.

28)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p. 91, p. 591 참조.

29)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섬이동 설화의 관념은 3가지로 변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주와 거제도에서는 섬이동 관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본토 내부로 들어가면서 산이동 관념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다시 산이 주는 혜택 곧 연료의 공급을 비롯한 풍수지리적인 혜택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댓가 지불이라는, 세금을 지불하는 모티브가 나타나고, 다음은 정지의 원인을 여성의 언행 때문이라는 섬이동설화의 모티브가 수용되었고, 전혀 다른 형태로 지체가 바위로 변이되어 나타난 울산바위형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 유형들은 서로의 모티브를 주고 받으면서 성장, 발전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양도 설화는 남방문화의 이동경로, 나아가서 동남아시아의 남방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증명해 주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이동경로는 고고학, 언어학, 해양학, 민속학 등 여러 과학의 學際的 연구가 진전될 때 더욱 확실한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